

文-安 투표시간 연장 공조 본격 착수

슬로건 제작·온라인 서명운동 등 통해 대국민 호소

공동대표에 이인영·송호창

민중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 측은 8일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공동캠페인에 본격 착수했다. 이는 두 후보 간 단일화 회동에서 투표시간 연장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한 합의에 대한 후속조치다.

이들은 지난 6일 발표한 단일화 공동합의문에서 투표시간연장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물론 서명 운동을 포함한 캠페인을 공동으로 펼쳐 나가기로 했다.

다만, 양 후보 측이 요구하는 연장시간이 서로 다른 점에 대한 실무팀을 통해 조율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민주당 측은 오후 9시까지 3시간을, 안 후보 측은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구성된 공동대표단에는 문 후보 측에선 투표시간연장 특별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이인영·김영경 공동선대위원장이 참여했다. 안 후보 측에선 투표시간연장 국민행동단장으로 활동 중인 송호창 공동선대본부장이 포함됐다. 다만, 문 후보 측은 추가 인선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양측은 앞으로 공동 슬로건 제작을 포함한 공동 온라인 서명운동, 두 후보가 직접 참여하는 공동 이벤트를 통해 투표시간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새누리당을 압박하면서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한 대국민 호소전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문 후보 측 김영경 공동선대위원장은 “어제에 이어 오늘 실무자 회의를 거쳐 이른바 내일이라도 공동대표단이 만날 수 있다”며 “두 후보 공동 이벤트의 경우 아직 검토단계지만 시민사회에서 촉발행사를 할 때 후보들이 참여하면 좋겠다는 의견 등이 내부적으로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 측 송호창 공동선대본부장은 이날 “민중통합당 공동 실무팀과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며 “실무진에서 구체적인 로케인 활동 방향을 잡는 대로 실행

에 바로 들어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내년도 예산 심사도 투표시간 연장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대립으로 3일간 연속 파행이 이어졌다.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9월 사실상 여·야 합의가 이뤄져 심사 소위 통과만 남겨두고 있는데, 여당이 정략적인 이유로 소위 개회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대선을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가 담긴 투표시간 연장 문제를 시급한 예산과 법안보다 우선 논의하자는 것이야말로 정략적 접근이라며 맞섰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신구 지도자의 거수

제5세대 지도부를 선출, 10년만에 권력교체를 이룬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가 8일(현지시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됐다. 사진은 주석단 비서장으로 선출된, 차기 지도자 시진핑 국가 부주석(오른쪽)이 인민대회당의 주석단 첫 회의에서 후진타오 주석과 나란히 앉아 거수하는 모습.

/연합뉴스

중 당대회 개막... 5세대 지도부 출범

시진핑 주석단 비서장 맡아... 10년만에 권력교체

중국의 제5세대 지도부를 선출하게 될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가 8일 오전 9시(현지시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됐다.

이번 당대회 개막식은 후진타오(胡锦涛) 국가주석과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 등의 주석단 임장, 우방궈(吳邦國) 전 국민대표대회 의장의 개회선언 및 마오쩌둥(毛澤東) 등 혁명선열에 대한 묵념, 후진타오의 업무보고의 등 순으로 약 1시간40분 동안 진행됐다.

대회장인 인민대회당에는 덩샤오핑(鄧小平) 이론, 3개대표론, 과학적 발전관을 지도이념으로 삼아 중국특색사회주의의 진전과 전면적 소강사회를 건설하자는 표어가 게시됐다. 오는 14일까지 이어지는 당 대회에는 전국 8260만2000명의 당원 가운데

별된 2268명의 대표와 장쩌민, 주룽지(朱鎔基) 전 총리 등의 원로가 중심이 된 특별초청대표 57명 등 총 2325명이 참석, 18기 중앙위원 200여명과 중앙후보위원 160여명을 선출한다.

새로 선출된 중앙위원과 후보위원 360여명은 당 대회 폐막 다음날인 15일 18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18기 1중전회)를 열어 중국 최고 권력자인 총서기, 정치국 상무위원, 정치국 위원 등을 선임한다.

형식적으로는 18기 1중전회에서 선출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당 대회 기간에 의견조율이 마무리되고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번 당 대회를 통해 중국의 제5세대 지도부가 구성되면서 오는 14일까지 이어지는 당 대회에는 최고 지도부인 상무위원은 7명이

선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총서기 자리를 예약해 놓은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과 리커창(李克強) 부총리의 상무위원직 유지는 확실적이다. 또 왕치산(王岐山) 부총리, 장더장(張德江) 총칭 서기, 장가오리(張高麗) 텐진 서기, 류윈산(劉雲山) 당 중앙선전부장의 상무위원 진입도 유력하다. 나머지 한자리는 위정성(俞正聲) 상하이(上海) 서기, 리위안차오(李源潮) 당 중앙조직부장, 왕양(汪洋) 광둥성 서기 간 겸함 구도로 전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당 대회 전날인 7일 열린 예비회의에서는 시진핑이 당대회 의사진행 등을 주도하게 될 주석단의 비서장으로 선출됐다. 시진핑이 비서장에 선출됨으로써 그가 이번 당 대회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면서 총서기로 올라갈 것이라는 예상이 더욱 분명해졌다.

/연합뉴스

“대선후보들 임기 1년내 개헌 약속하라”

김용태-우윤근 등 정치권 일각서 촉구

12·19 대선이 임박하면서 유력 대선후보들에게 ‘시한을 못박은 개헌 공약’을 제시하라는 정치권 일각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8일 현재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집권 후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공약을 제시했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집권초 개헌 실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개헌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분권형 개헌과 시대정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대선후보들의 ‘차기 대통령 임기 1년 내 개헌 공약’을 촉구했다.

김용태 의원은 발제를 통해 분권형 개헌의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서

“3명의 대선후보가 정치혁신을 대선의 중요한 화두로 생각한다면 지역발전단적인 정치혁신이 아니라 권력구조를 뜯어고치는 개헌을 약속해야 한다”며 “반드시 개헌 시한을 못박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여야 후보 가리지 않고 국민 앞에 ‘대통령이 되면 1년 안에 개헌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밝혔고,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후보들은 개헌을 약속하고

구체적인 로드맵, 타임테이블까지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오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분권형 개헌이 초점이고 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대통령 4년 중임제가 필요한 것”이라며 “분권에는 마음이 없고 4년 중임에만 마음이 있다면 이는 제사보다 제삿밥에 마음이 있는 것”이라고 박 후보 공약을 비판했다.

우윤근 의원은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이려면 분권형이 나아갈 길”이라면서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등 서로 대화·타협·소통하는 내각제가 맞다고 본다”며 ‘내각제’를 제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가 라운지

최정원 동구청장 출마 선언

최정원 민주통합당 광주 동구청장 예비후보는 8일 “쇠락과 침체, 갈등과 불신을 넘어 번영하는 동구, 복지가 실현되는 동구로 거듭 나야 한다”며 동구청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최 예비후보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단을 신설해 구성 운영에 최우선을 두고 추진시책을 발굴해 실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 동구의 변화와 발전을 함께 이끌 생활정치 시민정책 자문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양 예비후보는 “시민정책 자문단은 직능별·분야별·세대별로 관련 분야 전문가, 현장 활동가, 순수 일반 주민들로 구성해 동구의 현안문제·숙원사업·민원·발전방안 등 지역에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과제에 대한 대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지성명을 통해 “동구 발전을 이끌 책임자는 문화적 소양과 감성이 풍부해야 하는데 그동안 예술메세나 활동을 꾸준히 펼쳐온 오 후보는 이에 가장 적합한 후보”라고 밝혔다.



광주 미술인, 오형근 지지

광주 미술협회 및 광주 전업미술가 협회 회원 158명은 8일 오형근 민주통합당 광주 동구청장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치혁신 광주시민행동’ 출범

광주시민사회단체가 오는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희망 2013! 정치혁신 정권교체 광주시민행동’(이하 광주시민행동)을 결성한다. 광주시민행동은 9일 오전 광주 YMCA 무진관에서 출범식을 갖고 오후에는 5·18 기념문화관 대동홀에서 ‘희망 2013 광주시민총회’를 연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李대통령 위안부 인권유린 반성 촉구

발리 민주주의포럼 연설

북한 인권문제도 거론

인도네시아를 공식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8일 “2차 대전 중군 위안부 피해자 인권 유린에 대해 당시국의 솔직한 반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발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차 발리 민주주의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동북

아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인류 보편의 가치와 올바른 역사인식의 바탕 위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일본이 2차 대전에서 자행한 군 위안부 인권유린을 거론하면서 점차 우경화되고 있는 일본의 사과와 반성을 거듭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성숙한 민주국가로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관련된 문

제에 대해 개별 국가의 이해관계를 넘어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오히려 그 나라의 국격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현지 유력 일간지인 ‘콤포스’와 한 인터뷰에서도 “제2차 세계대전 중군 위안부 피해자인 인권유린에 대한 (잘못된) 역사인식에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연설에서 “유엔은 2003년 이래 ‘북한인권결의안’을 통해 북한 인권상황의 지속적인 악화를 우려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다”면서 북한 인권문제도 거론했다.

/연합뉴스

원조 한국공인중개사

부동산투자 경매 일반투자

95%적중 아파트, 상가, 단독주택, 원룸, 모텔 토지(대지/전/답/입)특수물건

▶ 경매 경험 없는 분, 단기간 수익 내실분
▶ 소액경매 투자회원 수시모집(회비,교육비없음)
▶ 소액경매, 부동산투자, 경험없는 분
▶ 소액경매투자 → 500만원 (100% 수익을 보장)
▶ 소액 2천만원, 5천만원 (100% 수익을 보장)
▶ 유치권, 특수물건 투자 100% 낙찰 입찰 대리

20년 원조 광주, 화순, 담양, 나주, 정읍, 진안, 남원, 진안지역 토지전문 부동산

부동산, 투자, 경매, 권리분석 하지않고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원룸, 상가, 토지, 모텔 권리분석 전문부동산)

☎(062)376-1128 / HP 010-7443-6200
FAX. (062)384-0050 / (062)385-1125
토지분석전문(사구정왕) 광주 서구 능동동 641-5
네이버 카페에서 hankookland로검색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남평 강변도시를 주목하세요!**

투자.. 지금이 기회!!

혁신도시 보다 저렴한 분양가!
광주시 남구와 공동학군!
대단위 아파트단지 분양예정!
관광호텔, 오피스텔 신축!
점포겸용 주택4층, 근생, 상업용지!

나주혁신도시 · 남평강변도시 전문 **솔로몬 공인중개사**
061)333-7077 · 010-5587-3080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

이지공인중개사

팝니다..토지,전답,임야등

- 담양군 담양읍 학동리 밤나무밭 1만평 P당 3만원
- 광주 신기지구 일반상업지역 대지194P P당390만
- 장성군 백암사입구 모텔 및 식당(상업용)대800P, 매가18억
- 영광군.읍.자동차정비공정20년간운영.자동차점사장동.매가16억
- 화순 이양면 초방리 임(77,727㎡.23,512평)매가1억
- 광주서구 매월동 자연녹지 및 준공업지역.1천4백P.2천5백P. 2만P등(각종 공장 및 기타사용 가능)
- 광주 동구 수기동 대지590P. 중심상업지역 매가24억
- 화순군 동면 서성리 호수부근 대지 210P 매가1억3천만
- 곡성군 오산면 조양리 매실밭 421P.매가3400만
- 오지동 3층상업상가주택 매11억(용.보5억5천포함)월수6백만
- 장성 남면 2중주거지역. 전200P.청고.공장.주택동.매가1억
- 광산구 우산동 4층원룸 매가16억 월수 6백만.
- 영광군 흥농읍 주유소. 대지460평 매가5억
- 북구 중흥동 원룸3층원룸 매가14억 월수 250만(인집별도)
- 장성군 북하면 백암사입구 주유소.대919㎡. 매가 4억5천만
- 장성군.읍.덕진리 대로면.전답.임야동10,100P. 매가 P당15만
- 광주 오지동 아파트단지지역내 5층상가.대166P.매가17억

구합니다(매수자대기)

- 월강공장부지1~3천평 (담양 대전면부근.8M이상도로접)
- 담양. 봉산면부근 공장부지3천평(대형차량진입가능)
- 소나무 좋은 임야 1만평이상(장성.화순.담양.함평.곡성등)
- 광주시내 수익성있는 상가건물3~18억선
- 광주.철단2지구내 병원신축부지 150평~300평
- 개인소유 저수지 3천평이상
- 전남.전북임원 폐교부지 3천평이상
- 도로여건 및 경관좋은임야 1만평이상
- 원룸 신축부지(광산구 산정동 및 신가.하남.철단지구등)

기타물건대량보유-전화상담바랍니다

전화 : 062-268-2834
HP : 010-6460-2834

랜드피아 공인중개사

상가 임대

각화동 홈플러스인근 병의원, 사무실 적합

- * 4~5층 각 130평
- * 6층 110평
- 보5천 / 월200만
- * 지하 140평 (임대가 및 조건조정가)

수익성 부동산매매

랜드피아오피스텔 매매

- * 15평~29평
- 9~12% 높은수익률

치평동 근린상가 매매

- * 매가29억~100억대
- 물건다량 보유
- 8%~10% 수익률

010-9731-8949 (치평동랜드피아 O/P1층)

가은 공인중개사

금 구

☆전남지역☆

염전양어장 (폐업전 포함)

잡종지

즉시 매입가능!

상무지구 랜드피아 사거리
010-8289-8549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 시내내 및 시외순례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염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FAX)223-1772 헬 011-602-2532 (광주은행 신분점 옆, 대인동 소방서 건너편)